

(2) 활 동

순천청맹이 맨 먼저 주력한 사업의 하나는 면단위로 지부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1927년 11~12월 사이에 순천면지부가 설립되었다. 초기 순천면지부의 주요 활동가는 박영진·조남이·고태우·정범조·한태선 등이었다. 전남의 경우, 순천을 비롯하여 장성·완도·영광·나주·화순·함평·강진·담양 청맹에서 지부 결성사실이 확인되는데, 대체로 기존의 면단위 청년단체가 청맹의 지부로 전환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하지만 순천면에는 3개 이상의 청년단체가 있었으므로 그 회원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지부를 결성했을 것이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지부의 하부단위는 반이었다. 순천면지부에 하부구조인 반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남을 통틀어 1928년 7월경까지 당시 언론에 나타나는 반조직 기사는 소수였다. 전남에서 반조직 결성은 그리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청총의 개정강령 제2항은 '청년대중의 의식적 교양과 훈련'이었고, 이를 위해 청년단체는 '과학적 이론을 선명히' 함으로써 회원의 의식을 양양하는 한편 미조직 청년대중의 문맹을 퇴치하고자 하였다. 순천청맹도 이러한 방향에서 회원을 교양하였다. 예를 들면 순천면지부에서는 1928년 1월 25일부터 2주일간 사회과학강좌를 개최하기로 하고 과목과 강사 선정문제를 정범조, 박영진, 한태선에게 일임하였다. 각종 집회에서는 국내외 정세에 관한 보고가 행해졌다. 노동야학에 관한 문제도 수차 논의되었다. 과거 순천청년회 경영의 승평학원이나 순천노동청년회 등이 관여하던 순천노동학원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순천청맹으로 계승되었을 것이다. 순천청맹이 창립된 직후인 1927년 10월 26일 노동학원 학무위원회가 열려 학원의 유지방침을 논의하였다. 이 회합에서 순천청맹 집행위원 이영춘이 사회를 보면서 논의를 이끌어간 사실은 순천청맹과 노동학원의 관계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은 학생과 소년의 조직화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1927~1928년 시기에 공청은 비합법 학생조직을 결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학교 단위의 독서회 혹은 그 틀을 뛰어넘는 비밀결사 속에서 학생들에게 사회과학이론을 습득시켜 미래의 활동가로 양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광주의 성진회(1926. 11.)와 '독서회 중앙본부'(1929. 6.)는 그 좋은 보기였다.

공청은 1928년 3월경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지도할 전담부서인 학생부를 공청 안에 설치하였다. 1920년대 중후반 전남 공청조직의 활동 가운데 가장 성과적이었던 부분도 학생운동 지도부문이었다. 학생운동 지도방향은 1927년경 공청 중앙에서 각 도위원회에 전달한 학생속에서의 선전지침을 통해 알 수 있다. 그것은 조선의 교육제도가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노예교육이며, 민족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말 교수를 금지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을 폐지하였다는 점을 폭로하는 한편, 학생회를 자치회로 바꾸도록 선전하라는 내용이었다.

학생운동 지도방침은 청총의 20개조 당면정책에도 일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의무교육제도의 확립, 교수용어의 우리말 사용, 조선인 교사 전용제도 확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단체는 소년부를 두어 보통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였는데, 전청련 산하에는 서무부, 조사부, 교양부, 여자부 외에 소년부가 설치되었다. 순천청맹 안에도 소년여자체육부가 설치되어서 소년층에 대한 지도를 전담하고 있었다. 1927년 11월 22일 순천매산학교 학생청년회가 주최한 '청년소년학생 응변대회'에서는 순천청맹 집행위원인 김광수와 박영진이 심사를 맡았다. 이 사실은 간접적이거나 순천청맹이 학생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순천청맹은 창립대회에서 전 민족적 단일당 결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신간회 순

천지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일단 구체화되었다. 1927년 12월에 설립된 신간회 순천지회의 간부진에는 순천청맹의 활동가가 다수 포함되었다. 순천청맹 활동가들은 순천지회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지회가 설립된 후에는 간사 혹은 집행위원으로서 신간회 실무를 담당하였다. 신간회 순천지회의 간부와 청년운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다음 표에 보이듯이 순천지회 간부진의 과반수 이상은 청년운동에 복무한 경험의 소지자였다. 특히 순천청년회와 순천청맹 관계자가 많았다. 순천청맹만이 아니라 각지의 청맹은 신간회 지회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하여 신간회운동의 실질적인 주동자 역할을 하였다.¹⁾ 전남의 당·공청 기관은 신간회 지회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조직이 있는 곳에는 거의 청맹과 함께 신간회 지회가 존재했다. 예를 들면, 1927년 10월경 공청 광주세포는 공청원의 신간회 지회가입을 개인 의사에 맡기면서도 공청의 정신에 입각하여 신간회 투쟁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²⁾

1)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참조.

2) 『奎在明外四十五人調書』, 385쪽(신주백, 앞의 논문, 177쪽에서 재인용).

신간회 순천지회의 간부진과 청년운동의 관계

신간회 순천지회 간부진	청년운동 관계자
설립준비위원 : 이길홍·박영진·오한길·김량준·정범조·김용택(1927.12.1.)	김양준(유학생대회), 박영진(순청·동부청·청련·청맹), 이길홍(순청), 정범조(청맹)
지회장 : 곽우영 부지회장 : 장국현 총간사 : 최리순·신철우·손남삼 상무간사 : 한태선·오한길·김정기 간사 : 김성일·윤귀중·김광수(1928.1.13.)	김광수(청맹·공청), 김성일(기청), 김정기(기청), 손남삼(노청), 윤귀중(순청·청련·청맹), 한태선(기청·순청·청련·동부청·전청련·청맹·공청)
집행위원장 : 김정기 서기장 : 김용택 회계 : 임규홍 집행위원 : 김용택·김성렬·임규홍·장정선·오만봉·한규성·나정선 집행위원 후보 : 강기반·장선옥 검사위원 : 장국현(장)·정0 구·황봉식 검사위원 후보 : 윤귀중 전국대회 대의원 : 김정기 동후보 : 김용택(1929.8.12·8.29.)	강기반(노청·청련·동부청·청맹), 김정기(기청), 나정선(순청), 임규홍(순청), 윤귀중, 한규성(기청·청맹·공청), 황봉식(청맹)
집행위원장 : 김용택 서기장 : 김성렬 집행위원 : 김성렬·나정오·김기동·황봉식·윤귀중·이경훈·강기반·나정선·김한영 검사위원 : 장국현·박영진·김정기 전국대회 대의원 : 김용택, 동후보 한태선(1929.12.21.)	강기반, 김기동(청맹), 김정기, 나정선, 나정오(청맹), 박영진, 윤귀중, 이경훈(청맹), 한태선, 황봉식

비고 : ① 밑줄은 순천청년동맹 관계자임.
 ② 약칭 : 순청→ 순천청년회, 기청→ 순천기독면려청년회, 노청→ 순천노동청년회, 청련→ 순천청년연맹, 전청련→ 전남청년연맹, 동부청→ 전남동부청년연맹, 청맹→ 순천청년동맹, 공청→ 고려공산청년회
 출처 : 『동아일보』 1927.12.6·『조선일보』 1928.1.18·1929.8.18·1929.9.2·1929.12.25.

1928년 시기에 공청의 순천지역 세포 3인 가운데 2인은 상무간사 혹은 간사로서 순천지회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은 순천지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였던 것인가. 이 점은 당·공청의 신간회 정책에서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1927년 5월 이래 조공은 신간회의 간부진을 기계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헤게모니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각 부문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전선(신간회)에서 실제적인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전남도당 및 전청련의 입장이기도 하였다. 1927년 7월 전남도당대회에서는 신간회를 민족·공산주의의 블록으로 간주하면서 “현재 집합된 요소는 대부분 몰락과정에 있는 농민이므로 그 지도 여하에 따라 우리들의 투쟁장으로 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신간회를 기계적으로 점령해서는 안 되며 각 지방의 꼬뮤니스트를 동원하여 신간회의 요소인 노동자·농민을 각각 경제적 조직부터(소작조합, 노동조합) 무산계급적 의식으로 교양훈련을 가하

고 그 무산계급적 부대가 신간회 내에서 무산계급적 입장을 취하게 하는 데에서만 신간회의 실제적 헤게모니를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³⁾

순천청맹은 전 민족적 청년운동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기념일(가갸날)과 같은 민족주의적 성격의 기념활동이나 재만동포옹호동맹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920년대 중반 이래 수차에 걸친 일제의 과상 공격으로 순천 청년운동의 지도역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전 민족적·통일적 청년운동으로 방향 전환을 부르짖으면서 순천청맹을 결성하였지만 순천면 이외의 청년단체나 종교청년단체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였다.

일제 탄압의 고삐가 죄어들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던 순천청맹은 1930년 말~1931년 초에 고조된 청총·청맹 해소운동에 휩쓸려 들어갔다.⁴⁾ 1931년 2월 20일 전청련 집행위원회는 청총을 해소하기로 결정하고, 해소의 구체안을 작성하여 정기대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순천청맹의 한규성이 참여하였다. 결국 순천청맹은 청총·청맹 해소투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이후 순천청맹은 언론보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청총·청맹 해소이론의 골격은 청총·청맹 안의 노동청년과 농민청년을 노동조합·농민조합의 청년부로 재편성하고 청맹을 소부르주아 청년의 단체로 재결성한 위에서 노농조합 청년부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청년들의 협의체적 반제통일전선을 새로 꾸린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부문운동으로서 청년운동의 의미를 크게 축소해버렸다. 더욱이 청맹 활동가들의 공개 노농조합 창설 혹은 청년부 설치 시도는 일제의 노골적인 금지조치로 대부분 좌초되었다. 노동청년, 농민청년을 조합 청년부로 재편성하려는 해소운동이 그 첫걸음부터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새로운 협동기관을 결성하려는 목표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1년 전반기 전국의 청년운동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총·청맹 해소운동은 공개 영역에서 청년운동의 전국적 지도기관인 청총을 완전히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운동의 지역적 근거지마저 상실하는 결과를 빚어내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現代評論.

全羅南道 內務部, 『靑年會指導方針』, 1922.

李 江, 『朝鮮靑年運動의 史的 考察』上·中·下, 『現代評論』 제1권 8-9호·제2권 1호, 1927.9·10~1928.1.

染川覺太郎, 『全羅南道事情誌』下, 全羅南道事情誌刊行會, 1930.

金正柱 編, 『朝鮮統治史料』6·7, 韓國史料研究所, 1970.

梶村秀樹·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9, みすず書房, 1982.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편, 『광주학생독립운동사』, 국제문화사, 1974.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금문사, 1976.

3) 釜在明外四十五人調書』, 767~768쪽(신주백, 위의 논문, 176쪽에서 재인용).

4) 청총·청맹 해소운동에 대해서는 이애숙, 『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참조.

- 金森襄作, 「조선농민조합사-1920年代의晋州·順天を中心にして-」, 『朝鮮史叢』 5·6합병호, 1982
(강재언 의, 『식민지시대 한국의 사회와 저항』, 백산서당, 1983).
- 大和和明, 「1920年代前半期の朝鮮農民運動-全南順天郡の事例を中心に」, 『역사학연구』
502, 1982(『항일농민운동연구』, 동녘, 1984).
- 조찬석, 「1920年代 전라남도지방의 청년운동」, 『인천교육대학』논문집』21, 1987.
- 이철우, 「1920년대 전라남도 순천지역의 농민항쟁과 범(上)」, 『法史學研究』10, 1989.
- 한송주, 「순천소작투쟁」 上·中·下, 『혜향』 52-54, 1989.
-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김점숙, 「1920년대 전남지방 농민운동-농민운동의 조직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지역운동
사』 II·호남편, 여강, 1993.
- 박철하, 「1920년대 전반기 사회주의 청년운동과 고려공산청년회」, 『역사와 현실』9, 1993.
- 신주백, 「1925~1928년 시기 전남지방 사회운동 연구-조공 전남도당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지역운동사』 II·호남편, 여강, 1993.
- 이균영, 『친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1899~1945)』, 범우사, 1994.
- 박철하, 「고려공산청년회의 조직과 활동(1920~1928)」,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 박철하·신주백·이준식, 「총론: 한국청년운동사(1920~1946)의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근현대청년
운동사』, 풀빛, 1995.
- 이애숙, 「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 이애숙, 「1920년대 전남 광주지방의 청년운동」,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